



투쟁하는 모성 조화순 1

강원도 봉평 태기산 자락에서 만난 조화순은 아직 불태울 많은 것이 남아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면바지 위에 산뜻하게 받쳐 입은 새빨간 티셔츠, 적당히 그을린 얼굴에서 피어오르는 흥조와 생동감은 이제 막 고희를 넘긴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느낌을 안겨 주었

다. 그는 여전히 젊고 건강했으며, 춤과 명상, 여성과 노동, 농사와 공동체, 통일운동과 생명운동 등 다양한 관심사에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었다. 그가 이곳 봉평에 정착한 것은 목사로서 한창 일할 나이인 62세 때였다. 목사의 정년이 70세인 걸 감안하면, 그의 돌연한 은퇴는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졌



그의 은퇴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 운동은 전 생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이 세계가 존속되는 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은퇴를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운동의 상을 세심하게 그려보았을 것이다.

“내 삶의 최종적인 운동의 꼴이 뭘까.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고, 나의 특성과 자질에 맞는 운동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공동체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것, 이 공동체가말로 미래 사회의 대안이라고 생각한 거야.”

농촌 운동은 조화순의 아주 오래된, 그러나 결코 바래지 않은 꿈이었다. 소녀 시절 『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영신의 삶에 감화를 받은 그는 가난한 농촌에 들어가 무지와 빈곤과 싸우며 농촌 발전을 위해 평생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 실제로 그의 초등학교 교사 시절과 목사 안수를 받은 뒤 덕적도에서의 목회 활동 시기는 그 결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붕괴에 내려온 뒤, 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팔을 걷어 부치고 발을 갈고 공동체의 삶을 일구는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이 보여주는 어떤 일관성 때문이리라. 혹 조화순을 잘 모르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대해 온 사람들은 그가 왜 지금껏 쌓아온 운동가로서의 명성과 목사의 명예, 인간관계 다 버리고 이 고적한 촌구석에 들어와 힘들게 새 삶을 개척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한국 노동자의 대모’로 불렸던 그와, 공동체와 생명을 말하는 그 사이에 어떤 일관성과 공통점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너의 발은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조화순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발의 신학’이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늘 자신

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단호했다.

“감리교는 지금 목회자가 남아돌아. 후배들, 좋은 사람이 많은데도 노인네들이 딱 버티고 앉았으니까 자리가 없어요. 70세까지 일하시니까들. 나는 좀더 일찍 나온 셈이지만, 최소한 65세에는 물러나야 한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덕적도에 파송되어 교회 개척을 하던 62년 무렵 조화순은 교인 심방을 갈 때도 성경과 찬송가 대신 재건복에 호미 하나를 들고 나섰다.

에게 '너의 발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 왔다.

“예수도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잘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느냐, 권력의 편에서 사느냐, 아니면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 편에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18년 동안 인천도시산업선교회(산선)에 몸담으며 노동자들과 함께 했던 그는 84년 산선을 떠나 가난한 시골 마을로 목회지를 옮겼다.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대거 현장에 몰려오면서 노동운동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자, 이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노동운동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현장을 떠난 것이다. 은퇴 후 그의 화두는 '생명'이었다. 땅이 소외당하고 생명이 천대받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유신 체제 아래서 가장 핍박받는 노동자가 되었듯이, 그는 지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난한 시골의 한 일원이 되어 있다. '민주화운동가'로서의 후광도, 명예도 없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지금 그의 발이 놓여 있는 곳이다.

조화순의 생애는 총 4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지향했던 제1기, 인천 산선의 총무로서 노동자의 편에서 끊임없이 유신 정권과 격돌했던 제2기, 농민의 벗 농촌의 목회자로서 지역운동과 여성운동,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제3기 그리고 은퇴 후의 제4기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2기는 한국 노동운동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치열한 투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시기였다.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 뒤늦게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한 조화순의 첫 번째 파송지는 덕적도였다. 그는 귀작 같은 움집들이 늘어서 있는 가난한 섬마을, 유리창도 다 깨지고 종각 꼭대기가 무너져 마치 폐가처럼 을씨년스러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다. 여자 목사는커녕 전도사도 극히 드문 때라, 한동안 교회에는 교인보다 여자 전도사를 구경 온 이가 더 많았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교인과 비교인을 구분하지 않는 조화순의 목회 방식은 금세 마을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심방을 다닐 때 그는 으레 재건복에 밀짚모자를 쓴 차림이었고, 그의 손에는 성경이나 찬송가 대신 호미가 들려 있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 야학을 했고, 청년 모임을 만들었다. 오래지 않아 교회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재건복에 밀짚모자 그리고 호미

감리교 선교사 조지 오글(한국명 오명걸)이 찾아온 것은 1966년 목사 안수를 받은 조화순이 시흥군 군자면 달월리 달월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농촌 목회가 꿈이었던 그는 특유의 열정과 친화력으로 이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명도 되지 않던 교인이 금방 120명으로 불어났고, 그의 방은 마을 청년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조지 오글이 찾아온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다.

1961년에 인천에 부임하여 노동 선교를 시작한 조지 오글은 '노동자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노

사관계에서 노동자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동자와 협력하는 것'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한울아카데미)을 노동 선교의 1차적 과제로 삼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산선에서 일하는 목사들에게 일정 기간(남자는 1년, 여자는 6개월) 의무적으로 노동현장을 체험할 것을 요구하였다. 오글 목사가 찾아온 것은 바로 2년 전부터 공을 들여 온 동일방직에 투입할 여자 목사로 조화순이 가장 적격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글 목사는) 산업선교라는 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나에게 느닷없이 함께 산업선교를 하자고 제의했어요. 아마 감신대에 가서 젊은 여자 목사가 있나 하고 조사하고 찾아온 듯했어요. 난 그 해에 목사안수를 받았는데 여자로서는 나 혼자였고, 가장 나이가 젊었어요.’ (조화순, 『고난의 현장에서 사랑의 불꽃으로』)

조화순은 일인지하에 거절했다. 간절히 꿈꿔 왔던 농촌 목회, 자고 일어나면 몇 명씩 교인이 늘어가는 재미에 한창 빠져 있던 그가, 벽안의 선교사가 난데없이 제의한 미지의 활동에 선뜻 동의할 리 만무했다. 조화순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조지 오글은 내리 사흘을 찾아와 끈덕지게 설득하는 것이었다. 네 번째 날, 다시 그를 찾은 조지 오글은 다소 풀죽은 목소리로 ‘산업선교를 하려면 노동을 해야 하는데, 다들 오겠다고 하다가도 노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나면 그만두더라.’고 푸념하듯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화순이 말했다.

“아휴, 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럼 제가 갈게요.”

조지 오글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엉뚱한 여성을 바라보았다. 다른 목사들은 반 이상 승낙을 했다가도 ‘노동’ 얘기만 나오면 탄소리하기 일쑤인데, 이 여자 목사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였던 것이다. 조화순에게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더럽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삶과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 조승혁(노사문제협의회 회장)은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육화시키는 그의 신학적 특성을 일러 ‘십자가의 신학’이라 했고, 유동우(노동운동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이라 했다. 유난히 사람을 좋아하고 고통을 무릅쓰는 그의 이러한 성향은 훗날의 엄청난 고난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조 목사님은 사랑 덩어리였습니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말한 ‘예수는 사랑 덩어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수난 덩어리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조 목사님이 바로 그 사랑 덩어리였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덩어리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조승혁)

사랑 덩어리, 고난 덩어리

1966년 11월 동일방직 취업을 앞둔 조화순에게



63년 달월교회 전도사 시절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한 조화순(아래쪽 가운데)



▲ 60년대 후반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열린 관리자 모임. 왼쪽 첫번째가 조화순 목사를 산업선교회로 인도한 조지 오글 목사다.

▼ 동일방직 노동자들과 함께(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조화순 목사)

조지 오글은 뜻밖의 주문을 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에 계십니다. 이제부터 목사님은 전도한다는 건방진 생각을 버리고, 노동자에게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동일방직 안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전도’를 목사의 사명으로 여겨 온 조화순은 오

글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버린 채 의욕에 넘친 첫 출근을 했다. 그러나 무명으로 만든 모자와 작업복을 걸치는 순간, 이제까지의 자신감은 간데없고 그는 무덤속이라도 굴러 떨어진 듯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다. 평균 학력 ‘7학년’의 어린 노동자들에게 그는 기술도 경험도 없는, 그저 어수룩한 서른네 살의 아줌마일 뿐이었다. 새까맣게 젊은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그를 함부로 불러댔고, 멸시했으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작업반장은 두 손으로 마구 그의 어깨죽지를 흔들어대며 근무 태도가 틀려먹었다고 소리쳤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대우받고 자랐던 그는 수치심과 굴욕감,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내가 누군데, 이 무식한 것들! 저렇게 팔자 사나운 것들한테 내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다가 문득 마음속에서 들끓는 미움과 증오심을 깨닫고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곧 울기 시작했다. 아니, 네가 목사냐,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다니! 그는 목사라는 이유로 대접이나 받으며 살려고 했던 자신을 처음으로 반성하게 되었다. 노동자에게 배우러 들어가는 것이지 가르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조지 오글의 말도 생각났다.

그는 현장에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전도해야 한다는 선부른 생각을 버리고, 노동을 통해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을 했다. 섭씨 30도가 넘는 먼지구덩이 작업장에서 진종일 시달려야 하고, 쉬는 날에는 오로지 자는 것이 낙인 노동자들의 삶을 진지하게 관찰했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쪼개 몇 푼이라도 고향집에 보내기 위해 그들

은 극도로 먹는 것을 아꼈다. 김치는 상찬이었고, 맨밥에 새우젓을 찍어 먹거나 맛나니 간장에 비벼 먹기가 예사였다. 조화순은 작은 일에도 악다구니를 쓰며 다투던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연민과 애정으로 바뀌었다.

6개월의 노동 훈련을 마친 그는 노동자들에게 요리, 꽃꽂이, 뜨개질 등을 가르치는 월 1회 강좌를 개설하였다. 이에 대한 여성 노동자들의 호응은 매우 높아서 2개월 후에는 약 200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교육 분야에 따라 소그룹으로 구성된 이들은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활과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현장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나왔다.

조화순은 산선 실무자들과 논의 끝에 소그룹 성원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노동조합사 등의 교육을 시작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역시 잘 몰랐으므로, 따로 열심히 배워 가면서 교육을 진행했다.

4·19 혁명 당시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보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저 ××들이야.'라며 못마땅해 하기도 했다는 조화순은 처음 산선으로 옮겨 올 때만 해도, 자신이 앞으로 민주노조운동에 기여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 같이 혹은 언니 같이

동일방직에는 오래 전부터 남자들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다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기구라기보다는 노조 간부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타협하는 어용 노조였다. 그들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와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호화판 생활을 즐겼고, 조합원들의 권익은 뒷전이였다. 노동조합 교육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은 전체 조합원의 80%를 차지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여성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노조를 구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교육이 진행될수록 여성 노동자들은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조화순을 따르는 이들의 숫자도 점점 많아졌다. 조화순에게 있어 교육은 삶과 분리

된 게 아니었다. 그는 수시로 노동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자기 집에 초대하기도 하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했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이성 문제로 고민하는 노동자의 상담자가 돼 주었다. 보수적인 신앙관을 깨지 못 해 집요하게 산선 활동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유동우 같은 노동자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몇 날이고 밤을 새우며 토론하기도 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그를 친어머니, 친언니처럼 따랐던 것은 그가 생활을 통해 일관되게 보여 주었던 따스한 인간미,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태도, 진리를 수호할 줄 아는 용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 화 순

- 1934년 4월 25일 인천 도원동에서 출생
- 1954~1956년 용인군 남사면 남사 국민학교 교사
- 1962년 감리교신학대학 졸업
- 1966년 목사 안수 받음
- 1966~1983년 인천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총무)
- 1970~1984년 한국사회선교위원회 위원(신·구교 연합)
- 1976년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
- 1983 달월교회 담임
- 1986~1988년 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촌분과 위원장
- 1987~1991년 전국감리교여교역자회 회장
- 1987~1989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회장
- 1989~1991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 1991년 기독교사회운동연합 공동의장
- 1991년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중앙위원
- 1992년 여성단체연합 회장
- 1995년 은퇴 후 강원도 봉평에 거주



김 기 선

1965년 서울 출생.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저는 열네 살 선영이예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대의 불꽃》 중 『전태일』, 『김진수』, 『최종길』 편 발표. 현재 격월간 『삶이 보이는 창』의 기획위원으로 활동.